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월 27일(금)
(음력 1월 6일)
Пятница
27 января 2023г.
№ 3 (1202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음력설을 맞아 지난 2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주 한인협회의 주최로 선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에 주택 건설량 증가 및 종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 연방 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사할린주 사회경제 발전의 총결을 논의했다. 해마다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는 주택 50만m²가 준공됐는데 이 건설량의 1/3은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를 위한 사회적 주택과 지역에 전문가들의 거주를 위한 주택이다. 지난 2년간 노후주택으로부터 편안한 주택으로 입주한 사람들은 7,849명이며, 올해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4,655명이 노후주택에서 벗어나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필요한 모든 제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택단지 구역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극동의 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계획 지역에 45헥타르 면적의 구역이 설정됐다. 여기에 9천 500명이 거주할 주택들을 건설할 예정이다. 지역 종합개발의 건축을 위한 원칙적 조건으로서

지정된 학교, 유치원, 문화회관, 통신사, 상점, 식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제반시설 주요 공사로 잘 갖춰진 주거 구역에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설명했다.

의료시설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행됐다. 진료소들에서 환자들의 대기 번호표가 30% 증가되었다. 이는 의료진의 근무 일정표 정돈 체제와 여러 의료시설 간 과부하 상황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었다. 이 기획으로 전 러시아 '보건기관: 산업의 선두' 상을 받았다. 종양과 심혈관 질환을 가진 주민들을 위한 공중 보건지도와 관찰 덕분에 암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었다.

2022년 연방 예산이 투입되어 경제성장 중심들의 사회개발 계획 시행의 일환으로 일련의 정책이 완료되었다. 또한 183 가구가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했고, 유

즈노사할린스크 중앙보건소에 첨단 진료소가 건설되었으며, 마카로브 지역 노위에 마을에 유치원과 코르사코브에 은퇴자들을 위한 양로원이 건립됐다. 사할린주의 지방과 주 중심에 84곳 주택가 정비가 이뤄졌고, 오히의 스포츠 학교 경기장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하수 처리장을 개설했으며, 코르사코브에서는 석탄 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설비가 이뤄졌다.

"서방 세계와 이들 동맹국들로부터의 강력한 압력과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할린주의 경제계획 일부 시행으로 생산 실적이 좋았다. 경제계획들은 향후 10년간 사할린 개발의 기초가 되며,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일 자리를 창출시키게 된다. 우리는 석유가스 및 농산업 산업단지 건설에 착수하였다. 대형 타이어를 고무 분말로 가공하는 공장이 가동됐고, 치즈 생산에 따른 대형 치즈 제조 공장이 생기고, 이투루프 섬에 양식장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선도개발지역과 블라디보스

토크 자유항의 거주민들이 1,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교통 제반시설의 개발을 논의한 가운데 오히의 공항에는 새로운 이착륙 활주로가 건설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이륙 활주로 건설에도 착수했다. 여기에 현대적인 공항청사 단지 건설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공공 제반시설 개발을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83억 루블리의 투자가 유치됐다.

2022년 '사할린-2' 기획의 수익이 안정성을 유지했고, 가스 생산량은 15% 증가했다. '사할린-1' 사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감독 아래 기획 운영 전환을 결정한 후 개편됐다. 11월부터는 석유와 가스 채취가 재개되어 하바롭스크 변경과 사할린 북부 소비자들에게 전량 가스 공급과 석유 운송도 재개됐다. '사할린-3' 기획 시작을 위한 준비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지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반입하고 있다.

(7면에 계속)

단신

체쿤코브 장관과 리마렌코 지사, 사할린과 쿠릴 개발의 핵심 기획들 논의

알렉세이 체쿤코브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장관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몇 년간 사할린주 개발의 핵심 기획들을 논의했다.

왈레리 리마렌코주지사는 지진활동이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추가 재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계획된 사할린 남부 활주로 건설 과정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도시 외곽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우회도로 건설을 논의한 가운데 외곽 우회도로 건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도로의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 상황도 개선시키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은 철도 교통을 도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 도시 간 승객 운송 시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또한 알렉세이 체쿤코브 장관은 코르사코브 지역 연안의 제반시설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일본인들, 쿠릴의 남섬들에서 조상에게 성묘 원해

일본의 외무성 하야시 요시마사 장관에 이어 후미오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와 인도적 교류 회복과 특히 러시아와 관계에 주요 우선순위로 쿠나쉬르, 이투루프, 쉬코탄, 하보마이섬들에 살았던 주민들의 조상 성묘 기회를 요청했다.

"우리는 일본 북부 4개 섬과의 인도적 교류 회복과 러시아 연방과 관계 속에 주요 우선 사항인 조상의 묘 참배를 위해 조속히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일본 외무성 장관이 강조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3월21일 일본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응해 일본과 평화적 회담 진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남 쿠릴 지역에 일본인들의 무비자 방문도 중지한 상태이고, 남 쿠릴 지역에서 경제 공동사업 조성에 대해 일본과 대화를 중단했다.

독감과 급성호흡기 질환 증가세 여전

사할린주에서 급성호흡기질환과 독감 감염 상황에 따라 최근 몇 주간 감염률이 진정되지 않는 추세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지난 3주간 감염병 상황 총결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2,945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독감 환자는 103명이며, 감염률은 1만 명당 60.8명이다. 이는 전역 임계치를 8.0%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 임계치가 초과된 지역들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유즈노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라고 사할린주 소비자보호감독청 홍보부가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 방면은 회장 후보로서 약속하는 것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과의 인터뷰

2022년 12월 17일에 열린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오진하** (빅토르 미하일로위츠, 1952년생) 씨가 선출되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가 오진하 회장과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 우선 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우리 주에서도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학교, 대학을 졸업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케람지트 및 탄화벽돌생산공장에서 마스페르 (전문기술자)로 시작하여 지배인(공장장)까지 빨리 승진했고 이 공장에서 17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후 사할린 주두마(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두 번의 임기를 역임했습니다. (임기 중 오진하 의원이 만든 여러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초등학생 급식,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자녀 급식 등에 관한 법. - **기자주**).

- 회장님께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출마하신 동기는 무엇인지요?

회장으로서 현재 어떤 문제와 과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계신지요?

- 이미 2년 전부터 주한인협회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차기 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명단을 보고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게다가 거의 12년 동안 주 한인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했으니 협회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아니어도 활동의 주요 방면, 행사, 임원 등을 알고 있었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 방면은 제가 회장으로 출마할 때 약속한 것입니다. 그 때 제가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특별법이 미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특별법 통과 전에 돌아가신 1세 분들, 그들의 자녀, 사할린 잔류 한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법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강한 단체로 계속 인정을 받도록 하고, 지방 한인회들의 활동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1세들에 관한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현재 한인문화센터 내에서 이들을 위해 개설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단체가 한 달에 두 번 어르신들을 모시고 의사와 상담, 치매예방 교실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적십자사와 함께 모국 방문, 영주귀국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국어, 한민족문화 보급 관련 사업과 씨름, 태권도 등



스포츠 관련 행사,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문화센터에서 태권도 자격 인증 행사가 있었습니다. 선수 80명이 등급에 따른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 사할린주한인협회의 모든 운영위 위원들과 인사 나누셨는지요? 제가 알기엔 운영위 위원이 26명입니다. 지방 한인회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결산선거 회의에서 회장 후보 모두가 지방에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 일부 지방한인회는 선거캠페인 때 다녀가기도 했고 일부 한인회 회장들과는 차츰 인사를 나눌 생각입니다. 사실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많이 바빠졌어요. 서류상으로나 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일정이 빡빡했어요. 지방한인회 활동과 지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중점을 둘 생각이요 그리고 지방 한인들이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나섰으면 합니다.

- 가장 아픈 문제는 한

인단체끼리 분열이 있는 것인데 회장님께서서는 사할린 한인사회를 단합시킬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 이 문제가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큰 단체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주 한인협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주한인협회 결산선거회의 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에게 다가가 "꼭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뭘 나누고 있는지?', '단합해야 한다'고들 하셨습니다. 지도자들 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일반인들만 피해를 봅니다. 주 한인협회 사업에 더 많은 동포들이 참여할수록 단체가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 산하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와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대할 생각인데 제가 이 위원회에 한인사회계를 잘 아시는 김홍지 씨,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단체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임용균 전 주한인협회장, 사할린 주두마 전 의원 정 왈레리,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 경험이 많은 전 네웰스크 시장 박 블라디미르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 블라디미르 같은 경우 네웰스크 대지진 이후 도시 거의 절반을 새로 공사했습니다.

- 올해 어떤 행사와 사업을 추진 하실 예정인가요?

- 우선 1/4분기 사업계획안을 작성했고, 이미 음력설 행사를 주최했고요. 1년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은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월에 진행될 운영위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결혼은 여러 번 했었고, 아들 넷입니다. 마지막 러시아인 아내와는 이미 22년째 살고 있는데 아들은 올해 20살입니다. 지금 의대에서 공부합니다.

- 사람들의 어떤 가치가 마음에 드십니까?

- 저는 사람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훈 또는 표어가 있으십니까?

- 네, 있습니다. 법 위에 정의와 자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네, 좋은 말이네요. 회장님께서 어떤 취미를 즐기시고, 자유 시간을 즐기십니까?

- 저는 항상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수상과 수비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상(점복)은 손금을 읽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말한다. 수비학은 또는 수비술은 숫자와 사람, 장소, 사물, 문화 등의 사이에 숨겨진 의미와 연관성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 위키백과 자료에

서). 지금 이걸 하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손, 얼굴 표정 등을 지켜봅니다. 사실, 제 생각엔 어느 지도자든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안산 고향 마을에 영주귀국하셨는데 연세가 많아 자주 아프셔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3-4번 다녀오고, 아내도 보내고, 남동생과 여동생들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을 다시 사할린에 모시자 해서 2016년에 집에 모시고왔습니다. 3년 반 쯤 아들로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점심 밥상을 직접 차렸고 저녁 밥은 아내가 담당했습니다. 부모님이 한 해에 돌아가셔서 많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가족이 저에게 저먼 셰퍼드 독일의 견종의 개를 선물했는데 우리 개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개와 매일 산책하는 것이 제 일이고 제가 즐겨 보내는 시간입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일이 많아서 출근할 때 가끔 저녁 7시가 되면 스스로 개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난 20일 코르사코브한인회 설맞이 행사에 가있을 때도 개 생각을 많이 했어요.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생들이 자선 바자회를 열다

1월 21일 '시티몰' 쇼핑센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들과 리제이, 전문학교의 학생들과 직원들이 조성한 자선 바자회가 열린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 <10일간의 착한 일> 행사가 마무리 됐다. 이 행사는 리제이 1호 학교가 주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교육청이 개최를 지원했다.

이번 바자회로 모인 성금은 '마야츠크(위치 추적기)'미성년을 위한 사회적 재활센터와 다른 사회기관을 위한 것이다. 바자회에서 학생들은 방문객들에게 제과류, 제과류, 다양한 창작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활동교실과 포토존, 사할린 기술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자선 바자회 고객 서비스 덕에 방문객들에게 머리 커트와 머리 땀기가 제공됐다. 주최 측은 이런 류의 행사가 활성화되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의 영향력을 상기시키며, 착한 행위를 촉진시킨다고 강조했다.

Учащие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ве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ярмарку

21 января в ТРК «Сити Молл» прошл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ярмарк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учениками и коллективами школ, лицеев и колледж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завершило «Декаду добрых дел»,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 лицей № 1, а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 департамент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 выру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Маячок» и другие соци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На ярмарке школьники предлагали гостям сладости, выпечку и различные творческие работы. Также там обустроили мастерские и фотозоны, а благодаря инициативе студенток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гост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ярмарки могли сделать себе прически, в том числе заплести косы. Сами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что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ого рода актуальны, так как они напоминают людям о пользе добрых дел и стимулируют их на хорошие поступки.

사할린 주민들, 올해 내내 <문화 교차로> 행사 무료 관람

1월2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의 교차로> 기획이 시작되어 특별 공연, 하우스 콘서트, 시의 향연, '복원' 전시회, 댄스 경연, 연극 프로그램, 활동교실 등등의 실험적인 사회문화적 공간이 조성된다.

창작기획의 명예의 첫 상연권을 얻은 이리나 이콘니코와는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인 '또 한 번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음악 프로그램과 '시린' 가무 앙상블을 선보였다.

문화행사는 한 달에 한 번 유즈노사할린스크 민속창작센터 무대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문화의 교차로> 행사 참석은 무료이며 12월에는 1년간 기획의 우수 공연자들의 갈라콘서트가 계획돼 있다고 주 정부 측에서 전했다.

다음 <문화의 교차로> 공연으로 2월18일(토) 흠스크의 '빌트 밴드' 청년 창작 보컬밴드를 만날 수 있다.

Сахалинцы весь год будут бесплатно ходить на «Культурные перекрестки»

20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Культурный перекресток» —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организуют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е социокуль-

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 необычными концертами, музыкальными квартирниками, поэтическими вечерами, «ожившими» выставками, танцевальными аренами,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Право стать почетным первопроходцем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досталось Ирине Иконниковой с ее новой музык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Еще раз о любви» 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му ансамблю «Сирин».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не реже одного раза в месяц на сцен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сещать «перекрестки»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В декабре планируется гала-концерт с лучш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за год,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едующий «Культурный перекресток», на котором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ворчеством молодежной вокально-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группы Bullit Band из Холмска,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18 февраля.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눈의 날 기념

1월 22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고르니 워즈드흐' 관광·스포츠단지에서 '눈의 날'을 기념했다.

동계스포츠 종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파인 스키와 스노우보드 활동교실 교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주최 측은 방문객들을 위한 음악·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사할린 주민들과 함께 극동지역의 주민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남부역에서 행사 마무리로 <사할린 사람들의 카드>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세계 눈의 날 행사는 2012년에 국제 스키연맹의 주도로 처음 진행되어 현재 전 세계 40개 국가들이 기념하고 있다.

(8면에 계속)

주 한인협회, 1세 어르신들을 위주로 음력설 행사 개최

음력설을 맞아 지난 2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주 한인협회의 주최로 설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최 측에서 이날 1세 어르신들과 특수작전 동원병들의 가족을 모였고, <60+>클럽 회원들과 일부 지방한인회장들을 초대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팀의 사물놀이 공연은 행사의 막을 화려하게 올렸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초등학생들이 신년 세배를 올려 주 한인노인회 김종길 회장이 전통적으로 이들에게 세뱃돈을 나눠 주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오진하 회장은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부유함, 사랑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고 이날 행사에 어르신들과 함께 특수작전 한인 동원병들의 가족도 모셨다고 강조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출장소 박상태 소장은 이날 어르신들을 염려하는 얘기를 하였다. 1924년생의 한 어르신을 예를 들었다. 경상남도 출신인 이분은 스무살 때 북한에 시집가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쿠릴열도로 파견되어 1948년에 쿠릴에서 큰 지진이 나자 사할린 체호브 시로 거처를 옮겼다. 현재 어르신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살고 계시는데 혼자 사셔서 불편함이 많다. 혼자 밖에서 산책도 못한다고 박 소장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뵙고, 새고려신문에 약속한 대로 동포에게 다가가는 소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포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했다.

이날 명절 분위기를 '에트노스'예술학교 무용단들,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 가수 최 드미트리 등이 한껏 안겨주었다. 이번 기념행사 공연 프로그램 준비에 주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준 주 여성회(회장 김 타치아나)도 수고 많았다. 물론 이날 전통적인 떡국이 인기가 많았다.

행사는 즐거운 춤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한인문화센터 소속 보컬악단(단장 김 블라디미르)이 노래를 들려주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설 축하

지난 21(토) 오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 노인정 모임이 펼쳐진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출장소 박상태 소장 내외와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 등이 음력설 축하하고, 어린 아이들은 세배를 올렸다.

노인정을 처음 방문한 박상태 출장소 소장은 이날 어르신들과 꽤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졌다.

시한인회 여성분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명절상을 차렸다.

노인정 모임은 한 달에 두 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즐거운 음력설 맞아

지난 20일(금)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5성'레스토랑에서 음력설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손님들에게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의 천영곤 회장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출장소 박상태 소장, 마카로브한인회 고영순 회장, 전 네웰스크 시장 박 블라디미르 등이 축하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측에서 이날 합창단(아리랑 노래), 무용단(전통춤과 현대 춤)이 공연을 선사했고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측에서 노래와 즐거운 게임을 준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사할린 동포들, 우크라 사태로 고국 땅 못 밟고 애태워 작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 350명 중 228명 아직 러시아서 생활 "하늘길 끊기고 바닷길은 표 구하기 어려워"...정부 대책 마련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하늘길이 끊기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영주 귀국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사할린 동포 절반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할린이산가족협회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사할린 동포 1세와 동반가족은 모두 350명이다. 이 가운데 80대 고령인 동포 1세는 13명이다.

동반 가족들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들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할린 동포 1세와 동반 가족 대부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연해주·하바롭스크주 등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

양아시아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할린 동포들은 작년 10월까지 모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항공기 직항편 운항이 중단된 영향 등으로 계획은 지연됐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를 곧바로 잇는 유일한 여객 운송 수단은 1주일에 한 번씩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강원도 동해를 오가는 카페리(여객·화물 겸용선)가 유일하다.

만약 사할린 동포들이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몽골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건강상 이유로 항공편을 여러 번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 형편상 항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대안으로 바닷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영주 귀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50명 가운데 한국으로 들어온 사할린 동포는 12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러시아에 남아있는 나머지 동포 228명은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사할린 동포 2세인 박경준 사할린이산가족협회장은 "'언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동포들 문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온다"며 "동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국 정부가 화상통화 등으로 일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인 동포 1세들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 등은 개별 입국을 희망하는 동포 외에 나머지 인원들이 배편을 활용해 단체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외공관을 통해 단체 귀국 희망자를 조사한 뒤 카페리 운전자 등과 협의하고, 고령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현지에 직원도 파견할 계획이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와 강원도 동해를 오가는 카페리가 오는 26일 이후 보름가량 수리에 들어가는 까닭에 단체 귀국은 오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사할린 동포분들의 영주 귀국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동포분들이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군수 물자 조달 등을 위해 러시아 극동 사할린주에 강제 징용됐지만, 1945년 8월 해방 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과 그 후손들이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Топовые компании уступают на вираже мировым конкурентам

Сеул, 22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В 2022 году только 16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Fortune Global 500, сообщила Федер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реи(FKI).

Федерация опубликовала свой анализ компаний, вошедших в список Fortune Global 500 минувшего года. Китай занял самую большую долю со 136 компаниями (27,2 процента), за ним следуют США со 124 компаниями (24,8 процен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долю американ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ишлось 52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В список вошли 47 японских компаний (9,4 процента), 28 немецких компаний (5,6 процента), 25 французских компаний (5,0 процента) и 18 британских компаний (3,6 процента). На Южную Корею пришлось всего 16 компаний (3,2процента).

В пересчете на продажи по странам общий объем продаж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ил 11,2 тр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США, при этом средний объем продаж на одну компанию достиг 90,46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Совокупный и средний объем продаж китайских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ил 11 триллиона и 80,98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овокупный объем продаж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списке Global 500 составил 996,2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при этом их средний объем продаж составил 62,39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родаж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был самым низким среди крупных стран, включая страны G7 и Кита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ходящие в список Fortune Global 500, были занят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восьми отраслях. Двенадцать компаний (75 процентов) сосредоточены в четырех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я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электронике/полупроводниках, финансах,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и и энергетике.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 оказалось компаний из списка Fortune Global 500 в новых отраслях, таких как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Анализ дело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основных экспортных секторах также показа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уступают мировым конкурентам. В результате анализа бизнес-показателей в четырех отраслях — электроника /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автомобили, материалы / металлы и химикаты, годовой объем продаж компаний № 1 в мире был в 1,5-4,6 раза выше, чем у компаний № 1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дажи Apple в 1,5 раза превысили продажи Samsung Electronics. Это было примерно в 2,9 раза больше между Volkswagen и Hyundai Motor и примерно в 2,3 раза между Baou и POSCO.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ую отрасль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у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будет выделено 1 трлн 229,5 млрд вон (992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Нынешний год станет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в проекте превращения РК в «турист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К 2027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до 30 млн человек в год, повысив доходы от туризма до 3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год. С этой целью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мерен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поиск контентов, совмещающих компоненты туризма и культуры. В Сеуле будет создан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ластер,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т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в районе бывшей резид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Чхонвадэ. На активизацию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нтен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выделить 15 млн долларов. Около 3 млн долларов пойдут на развитие ночного туризма. В 15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ах мир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по туризму в РК. Турагентства, столкнувшиеся с ухудшением показателей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лучают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KBS World

Фильм «Решение уйти»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BAFTA

Романт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Решение уйти», получивший приз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стал номинантом премии Британской академии кино и телевизионных искусств (BAFTA). Он будет бороться за награды в категориях «Лучший неанглоязычный фильм» и «Лучшая режиссура». В этом году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состоится 19 февраля. В фильм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история детектива, который подозревает вдову-китайку в убийстве, а посл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наблюдения и допросов влюбляется в неё. В 2018 году Пак Чхан Ук получил премию BAFTA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неанглоязычный фильм» за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Служанка». В 2020 году другой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ёр Пон Чжун Хо был удостоен двух наград BAFTA за лучший неанглоязычный фильм и оригинальный сценарий за фильм «Паразиты». В 2021 году актриса Юн Ё Чжон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BAFTA за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второго плана в фильме «Минари».

KBS World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отметил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22 января корейцы отметил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зднества, посвященные этому событию, провели мно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21 январ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зидент О Тин Ха) организовал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ед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семей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на СВО. Были также приглашены члены клуба «60+»,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РООСК.

Дв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и ЮСМОСК отпраздновали это событие в ресторане «5 звезд», собрав почти 200 человек.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обытия стала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 Ханин».

А ЮСМОСК приглас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собирается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на протяжении уже многих лет.

Вс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тарались создать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яркие номера, накрыт вкусный стол.

Праздники прошли и в районах. О том, как прошел Лунный Новый год в Аниве, читайте ниж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тпраздновала Сольналь

У корейцев лунный Новый год называется Сольналь, это один из важных праздников календаря. 21 января в Ани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аспоры собрались на ужин,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анив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дравили с Новым годом вице-мэр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ван Василье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Оксана Пак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ни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Александр Ким.

Оксана Пак пояснила, что обычно корейцы отмечают Новый год пышно. Но пока идет спецоперация, сочли уместным лишь небольшой банкет.

РООСК активно помогает нашим бойцам с первых дней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качестве ещё одного новогоднего повода использовали вручение анивчанам юбилейных знаков, выпущенных к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егиона, созданного трудами (в том числе) нескольких поколений корейцев.

Знаки от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лучили Сим Су Ни, Ким Ни На, Че Те Бун, Пак Сен До, Владимир Яковлевич Пак, Че Кир Сен, Ю Ха Дя, Ди Дал Сей, И Вон До, Юн До Ен, Юн Чен Су.

В зоне вним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ходятся примерно 26 000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данным РООСК,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живают 1 200 членов диаспоры. Новогоднее поздравление анивчанам передал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Юрий Им. Пред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депутата жили в нашем районе, Анива ему близка и дорога.

Перед вручением знаков вице мэр Иван Васильев поблагодарил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к новогоднему столу, пожелал всем здоровья, мира и тепла в семьях. А за ужином обсудил новые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вла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социальная жизнь

20 января 2023 года в столице Узбекистана в Институте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и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системы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ошла 1-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социальная жизнь».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приурочена к 85-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организована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учон в г. Ташкенте.

Вот уже прошло почти 85 лет как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вые корейцы появились здесь ещ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но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попала сюда п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Сталина-Молотова, росчерком пера переселившегося в 1937 году более 172 000 корейцев с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 гибридном формате (офлайн и онлайн) и состояла из трех сессий —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 осмыслению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Евразии (царский и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освещен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театр, СМИ)», «Идентичность и самосознание корейцев СНГ».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ученые —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корейцам Евразии —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США.



В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и наша землячка — Тен Жанна (정영순),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о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Инчхона.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вои или чужие»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зменения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едав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отмечалось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еспубликой Узбекистан, имеющих сегодня особы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роведение масштабного научного форума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ивает эти отношения.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чон регулярн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изданий)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вновь призвал Пхеньян вернуться к диалогу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лжны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тить провокации, угрожающие выжив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от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редложения Сеула о переговорах.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Ким Ги Ун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стоявшейся 22 января в павильоне Имчжингак в городе Пха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лностью игнорируют свою основную обязанность заботиться о жизн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Ким Ги Ун призвал Север выбрать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напомнив, что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Сеула, в том числе, о переговорах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емей, разлучённых Корейской войной, остаются в силе. «Дверь для диалога остаётся открытой», - сказал он. Церемонию в павильоне Имчжингак провели южнокорейцы, предки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выходцам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2022 году Пхеньян получил помощь на 2,3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данным службы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Управления ООН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вопросов, в 2022 году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 сторон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ставила 2.338.232 доллара, что на 11 млн 691 тыс. долларов меньше, чем в 2021 году. Сокращение вызвано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строгими карантинными ограничениями, введённы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1 млн 600 тыс. долларов или 69,5% общего объёма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оставила помощь Швейцар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ная через Детский фонд ООН (ЮНИСЕФ) и Швейцар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513.927 долларов предоставил Швед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а 199.601 доллар - Норвеж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Ряд стран, включая Канаду, Финляндию, Францию и Германию,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ли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2021 году, не сделали этого в 2022 году. В этом году Швейцария обещала выделить 1 млн 214 тыс. долларов через ЮНИСЕФ на пит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Семьи жертв Итхэвонской трагедии провели поминальную службу

22 января, в первый день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семьи жертв трагедии в сеульском районе Итхэвон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ую поминальную службу. Около 80 человек собрались у мемориального алтаря,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на площади у станции метро «Ноксапхён». Они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давки 29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кольку все погибшие были молодыми людьми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40 лет, вместо традиционной еды, которую обычно ставят на поминальный стол в праздник Соллаль, их близкие принесли популярные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закуски фастфуд, пиццу и пиво. В тот же день поминальную службу провели семьи жертв крушения парома «Сэволь» произошедшего в 2014 году.

С 30 января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ое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помещениях

С 30 января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ое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помещени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аптек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20 январ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Он пояснил, чт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поскольку выполнены три из четырёх требований,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мягч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Это стабилизация темп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тяжёлых больных и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с летальным исходом, а также способность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правиться с пандемией. Четвёртое требование – создание иммунитета в уязвимых группах населения – пока не выполнено. Дата смягч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определена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жидается резкий рост передвижения населения и личных контактов. Хан Док Су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звал пожи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значение которой возрастёт с отменой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в помещениях.

В РК растёт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из Японии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озобновило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для граждан восьми стран, включая Японию. После этого резко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японцев, посещающих страну. 15,4%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РК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шли на граждан Японии. Далее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США, Сингапура, Таиланда и Китая. В течени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К посетили 3.390.009 иностранцев. Это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в 2021 году. Между т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рубежом побывали 6.580.145 южнокорейцев. Чуть больше 1 млн из них побывали в Японии и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во Вьетнаме.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поездок – США, Таиланд и Филиппины.

(RKI)

18 лет назад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бъявила о налич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смогла достигнуть КНДР за это время

Хотя официальн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считается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но ни для кого не является секретом, что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у этой страны есть. КНДР неоднократно путем проведения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доказала, что сумела овладе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оздав собственный ядерный меч.

Слухи и подозрения по поводу наличия у КНДР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ходили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и долго, но официально об это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явила 22 января (по другим данным - 10 февраля) 2005 г. Итак, что мы знаем о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и ядерных силах КНДР и чего она смогла достигнуть на этом поприще.

Первые шаги

Хотя активно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ала обсуждаться с 1990-х гг., но эта сфера имеет более глубокие корни и историю, уходя вглубь почти до 1950-х гг.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научные центры были созданы в КНДР еще в 1950-х гг. и первые работы, подготовка специалистов велась при активной помощ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СССР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сотни, если не тысяч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нженеров, ученых, занимавшихся проблемами ядерной физики.

Параллельно в местечке Ёнбён, что в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ах километров к северу от Пхеньяна, был создан Центр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торый ост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главной известной ядерной площадкой КНДР. В 1965 г. там был запущен перв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ядерный реактор, создана хими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В 1980-х гг. в том же месте были сооружены еще два газогрифовых ядерных реактора. У одного из них мощность 5 МВт, второй был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уровне 50 МВт. В 1989 г.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Тхэчхон началось возведение третьего реактора мощностью 200 МВт. По поводу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и каждого из них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споры, но точно известно, что первый и скорее всего второй работают постоянно, набиравая в том числе и оружейный плутоний.

В 1974 г. КНДР вошла в соста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МАГАТЭ), что позволило ей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о многим ценным научным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разработкам. Считается, что где-то с 1970-х гг. КНДР стала задумываться о создании свое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ЯО), что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прочувствовали в Москве, став лучше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устремления союзника.

В 1985 г. во многом под давлением СССР, который поставил это условием продолж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ядерной сфер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писала Договор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ДНЯО), хотя,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курс на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ЯО продолжил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Ожидалось, что СССР построит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лноценную атомн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для этого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о распад СССР не позволил реализовать тот проект. Впрочем, о нем еще вспомнят...

Обострение и переговоры

Кра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прекращение помощи со стороны СССР и Китая заставил КНДР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скать пути для выживания и обеспечения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хеньяне поняли, что надеяться можно только на себя, а потому усилия по созданию свое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были форсирован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трана оказалась в крайне слож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чался голод. В то время многие на Западе считали, что дни КНДР сочтены, а потому усилили давление на Пхеньян, подняв вопрос о незаконн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В 1992 г. в КНДР побывали инспекции МАГАТЭ, которые подтвердили кое-какие подозрения. Нача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где активную роль играли США, но консультации не привели ни к чему, наоборот обострив ситуацию. В 1993 г. Пхеньян заявил о начале выхода из ДНЯО, окончательно оформив это в 1994 г.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озже, в то время США все-речь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нанесения ударов по ядерным объектам КНДР, чтобы раз и навсегда решить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Страны чучх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осле взаимных угроз, давления и торга в октябре 1994 г. в Женеве США и КНДР подписали рамочное соглашение, которо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о возвращ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ежим ДНЯО, отказ от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Взамен создава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сорциум КЕДО,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построить к 2002 г.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два блока АЭС. Для этой станции выбрали как раз то самое место, где ранее планировал возвести тот же объект СССР - благо все исследования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Как показали дальнейшие события, ни одна из сторон, которая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я в 1994 г., не планировала их выполнять.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и полагали,

что дн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чтены, а потому не стоит искренне выполнять обязательства. Вскоре и Пхеньяну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к 2002 г. КНДР не получит обещанной АЭС.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стала сворачивать военный аспект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чались взаимные обвинения, атмосфера стала накаляться. В 2002 г. США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ли, что КНДР продолжает набирать расщепляющие материалы и вес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создания атомной бомбы, Пхеньян же указал,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не выполняют подписан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НДР так и не получила АЭС, объявив в конце 2002 г.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военн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а в 2003 г. повторно оформила выход из ДНЯО.

Впрочем, попытки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утем продолжались, в рамках чего с августа 2003 г. стартовал шестисторонний формат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КНДР. В н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Россия, Китай, США, Япония, КНДР и Южная Корея. Но у каждой из сторон были очень разные цели, а данный форум часто использовался не для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НДР, а выполнения каких-то иных задач. Раунды переговоров то проводились, то прекращались, были времена, когда подписывалис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как казалось, открывают путь для прогресса и мира, но всегда затем неизменно следовал срыв, взаимные обвинения и прекращение диалога. Вплоть до 2006 г.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шесть раундов переговоров в рамках "шестисторонки", а затем они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В апреле 2009 г. КНДР констатировала очевидное, заявив о бесполез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данного формата, тем более что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Пхеньян уже на деле доказал, что ядерная бомба у него уже есть.

Превращение в ядерную державу

В начале 2005 г. КНДР заявила, что она уже обладает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и является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Хотя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е исключалась, большинство зарубежных экспертов считали, что Пхеньян просто блефует, пытаясь усадить США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и выбить уступки 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омощь.

9 октября 2006 г.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в районе местечка Пхунгери на своем единственном ядерном полигоне КНДР произвела первые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Правда, и тут не все были полностью убеждены, так как сила взрыва оказалась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высокой, что дало основания некоторым предположить неполадки испытываемого оружия. Впрочем, если они и были, что потом КНДР сняла все вопросы, произведя вплоть до 2017 г. еще пять испытаний: 25 мая 2009 года, 12 февраля 2013 года, 6 января, 9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и 3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При этом испытания в январе 2016 г. и сентябре 2017 г. были заявлены как термоядерные.

Если ранее были какие-то сомнения, то теперь даже самые отъявленные скептики признали, что КНДР овладела ядер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так как мощь взрывов была большой. Кроме того, большинство экспертов склонны считать, что Пхеньян не лукавил, объявив в двух случаях о термоядерных взрыв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пришедший к власти в КНДР в конце 2011 г. молодо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куда активнее, чем его отец и даже дед, настроен на то, чтоб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не просто государством, обладающим "какой-то бомбой", которую фактически сложно применить, 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полноценную ядерную державу, обладающую настоящими ударными ядерными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их доставки.

В этой связи, именно при Ким Чен Ыне стал наблюдаться резкий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и качества как ядерных, так и особенно ракетных испытаний. Ракетную программу сл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отрыве от ядерной, так как из-за слабого развития авиации и иных альтернатив КНДР делает ставк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ракеты, как 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доставки ядерных боезарядов. И,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билась еще более впечатляющих успехов, сумев создать, испытать,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поставить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самые разные типы ракет - малой,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способные достигать любой точки США. Также были испытаны и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способные выполнять маневры по уклонению от систем ПРО -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Кимскандеры" или KN-23 - аналоги российских "Искандеров".

КНДР испытывала как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так и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активно внедряются как жидкотопливные, так и менее уязвимые для противника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е системы.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사할린주에 주택 건설량 증가 및 종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1면의 계속)

지난해 수권자본 투자에 2021년보다 1.7%가 증가한 2,610억 루블리가 유지됐다. 주 정부는 석유가스 부문과는 관계없이 산업 부문에 현실적인 투자 증가를 이뤄냈다. 사할린주에서 정부와 기업 간 상호관계의 체계를 개혁하고, 개방성과 우호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허가권과 연결망 착수 수속 기한을 단축시켰다.

올해는 제반시설 개발 및 새로운 투자 계획들의 착수에 따른 대규모 사업을 지속한다. 더불어 코르사코브 항구의 현대화 작

업, 포로나이스크 다기능 화물 운송 구역의 건설이 계획돼 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물류센터 건설, 복합자재들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조선소 건설, 목재가공 단지 건설, 시멘트와 조립식 주택 생산공장 건설, 연료 생산공장 건설, 5개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개발이 계획돼 있다.

사할린 주민 생활의 질적 개선이 검토된 가운데 이에 대한 맞춤 접근 방식 덕분에 빈곤한 처지에 있던 주민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동원병과 이들 가정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지원금을 긴급 시행하며, 국방부와 긴밀히 업무 접촉을 원활히 하여 군부대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와 물품 구매가 조성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와 만남에서 일련의 교통 접근성 문제로 연방 지원을 요청했다.

부총리는 러시아 건설부와 교통부에서 사할린의 요청안이 검토되도록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코르사코브 항구 현대화와 연관된 시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 '2023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상·하반기 각 5개월 동안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 직접 체험 외교부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3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공공외교 이해도 및 국제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선발인원을 30명에서 38명으로 증원했다.

올해 선발된 현장실습원은 상·하반기 각 5개월 동안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는다.

현장실습원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뤄지며, 공공외교 활동 및 국제 업무에 관심있는 만 29세 이하인 우리나라 국적

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 사증 발급비 등이 지원되며, 특수지의 경우 특수지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선발 기준으로는 어학 능력, 가점 부여 사항(국가유공자, 취업취약계층, 지방인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자세한 정보는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사이트(mofa-hml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사할린 동포들, 우크라 사태로 고국 땅 못 밟고 애태워

작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 350명 중 228명 아직 러시아서 생활 "하늘길 끊기고 바닷길은 표 구하기 어려워"...정부 대책 마련

(3면의 계속)

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한인 수는 2만6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일 양국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2015년까지 공동예산을 들여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을 지원했으며, 2016년부터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영주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일부와 초기 정착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남양주시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육세트 100박스 전달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한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지난 19일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990만 원 상당의 정육세트 100박스를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정육세트는 남양주시 북부권역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와 소외된 이웃 10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병원 김부섭 원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사할린 동포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북부희망케어센터 전정수 센터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정을 전해주시는 현대병원 김부섭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후원 물품은 어려운 이웃분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내외일보]

'징용 조선인은 전쟁 소모품이었다' 펴낸 문창재 작가

문창재 작가가 6일 한국일보 본사를 찾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938년 4월 1일. 일본은 일본 점령지를 대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라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다. 세계 열강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한계에 직면한 일본이 한반도의 인력 수탈을 본격화한 것. 이후 '노무 동원'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조선인이 중국 만주, 러시아 사할린, 태평양 남양군도, 동남아시아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렸다. 생면부지 이국땅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이 연기처럼 스러졌지만 그 끔찍한 숫자조차 가능할 수가 없다.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논설실장 등을 지낸 기자 출신의 문창재(77) 작가는 징병 조선인의 수난사를 296쪽 분량의 책 한 권으로 고발했다. 지난달 펴낸 저서 '징용 조선인은 전쟁 소모품이었다'는 폐암 4기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려 온 작업의 결과물이다.

출발은 2년 전이다. 최근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문 작가는 2021년 KBS 다큐멘터리 '태평양 전쟁의 한국인'을 우연히 시청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징용 조선인들의 처참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평생 언론인으로 살면서도 그 비극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과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시절 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세상을 등졌어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기구한 인생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전에 뭐라도 남겨야겠다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5년째 지난한 암투병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징용 조선인 관련 자료와 문서를 손에 넣기 위해 1년간 발품을 팔았다. 전국 고서점과 도서관 수십 곳을 다니며 땀과 땀, 탄광, 군수공장에서 조선인이 희생된 상황과 증언, 일기와 신문기사 등 '팩트'를 모았고, 그를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썼다. 그는 "징용이 일본 본토에서만 있었던 일로 알려졌지만 실상 징용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며 "중남부 태평양과 북태평양의 섬, 시베리아 최북단까지 끌려간 이름 없는 조선인만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마저도 일본인이 조사한 통계"라고 탄식했다.

문 작가는 "징용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가장 뜨거운 외교 현안이지만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비극을 똑바로 알고자 연구하고 증거를 남기는 데 게을렀다는 일같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나라를 뺏긴 것만도 분한데 강제로 끌려가 혹사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것은 민족 자존의 문제"라며 "그런데도 우리 손으로 만든 책과 소설은 몇 권이며, 영화는 몇 편이나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제 잔재를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이름 없는 서민들의 역사를 발굴하고 싶다"는 그는 "병을 생각하면 벅찬 일임이 분명하지만 기록자로서의 부채를 힘 닿는 만큼 없애고 갈 생각"이라며 "조선인 원폭 희생자를 다룬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우리말로 깨닫다]

토끼는 토끼다

토끼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와도 매우 친숙한 동물이지요. 토끼 간을 용왕의 병 치료에 쓰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토끼 간에 특별한 약효가 있을지 궁금해 하기도 했습니다. 간이 건강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왜 토끼의 간이었을까요? 토끼의 간이 더 특별하였을까요?

토끼 이야기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거북이와의 경주지요. 결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교만한 토끼의 패배입니다. 성실성 앞에 재주가 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토끼를 보면서 우리는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늘 성실하게 씬 없이 살아가는 것에 지쳤다고나 할까요? 성실함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만, 씬이 비난 받을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살다가 힘이 들면 빗 가린 나무그늘 아래서 술술 부는 바람을 맞으며, 꼬마지 잇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패배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편한 잠을 누렸으니까요.

토끼라는 말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런 말이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순우리말처럼 보이는데, 순우리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토끼의 토는 한자어 토(兔)와 같습니다. 한자어를 어원으로 보는 것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호랑이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호랑이의 호(虎)가 한자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끼의 토는 정말 한자일까요?

고구려어에 보면 토끼에 해당하는 단어로 오사함(烏斯舍)이 나옵니다. 지금의 독음이니 그 때는 달랐을 겁니다. 이 단어는 일본어 단어 'usagi'와 닮아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어와 일본어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경우는 특히 놀라움을 줍니다. 3, 5, 7, 10의 경우 고구려어와 현대 일본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말에는 토끼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고구려에 나타나듯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토끼는 한자어일까요? 저는 다른 가능성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말에도 토끼가 있고 한자어에도 '토'가 있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하였거나 원래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과 마(馬)도 이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말을 마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몽골어에서도 말은 'morin'이었습니다. 말과 마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토끼는 중세국어에서는 '똥기'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한자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토끼를 몽골어 등을 찾아보면 'tulai'로 토끼와 비슷한 발음의 말로 나타납니다.(서정범, 새국어 어원사전) 저는 토끼와 토(兔) 그리고 다른 알타이 제어의 말들이 모두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똥기에서 '똥'을 재구한다면 '고슴도치'의 '똥'이나 '도야지' 등과도 어원적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원을 밝히는 일이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한편 토끼라는 말은 은어와 속어에서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토끼가 잘 도망가는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바로 '토끼다'입니다. 명사가 그대로 어간이 된 말입니다. 이런 구성은 우리말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빚 - 빚다', '풀 - 푸르다' 등이 있습니다.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토끼!'라는 말이 암호처럼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토끼'라고 하면 도망가라는 의미였을 수 있는 겁니다.

올해가 '토끼의 해'라는 이유로 금금증이 꼬리를 물었고 이야기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토끼가 식용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까무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사구팽의 뜻을 설명해 주면 조금은 이해가 깊어질까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 토끼의 해에 복 많이 짓고, 기쁨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День снега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2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метили День снега.

Желающие научиться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горным лыжам и сноубор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гостей музыкаль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мимо сахалинцев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или жители друг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В завершение праздника на южной станци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ели розыгрыш подарков от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снега отмечают в 40 странах мира. Первые его провели в 2012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лыжног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 국립대 대학생들 교통사고를 당한 소년의 치료를 위한 모금 행사

сахалин 국립대 대학생들이 러시아 대학생의 날(1월 25일 기념)을 앞두고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방문객들은 제과, 기념품, 카드, 책, 액세서리 등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들은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대학의 교수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제품들이다.

〈착한 바자회〉가 3년 만에 14만5천 루블리 모금에 도달했다. 모아진 기금은 자선을 위해 쓰이는데 2020년에 모아진 자금은 〈용맹의 함〉 기획 실행을 위해, 2021년에 자선 기금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위해, 2022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보호소를 위해 쓰였다.

올해 모인 기금은 외상을 입은 후 재활을 위해 현대적 재활 기구가 필요한 아나와 지역의 보바 골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보바가 2018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벌써 4년째 보바의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 싸우며 아들이 두 발로 서길 꿈

꾸고 있다.

Студенты СахГУ собрали деньги на лечение пострадавшего в ДТП мальчика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отмечается 25 января)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прове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ярмарку. Посетители приобрели выпечку, сувениры, открытки, книги, аксессуар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се это сделали своими руками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уза.

За три года «Доброй ярмарки»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порядка 145 тысяч рублей. Все выру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идут 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 Так, в 2020 году собранные деньги направили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ундучки храбрости», в 2021 — семье, пострадавшей от пожара, а в 2022 — приюту «Пес и кот».

В этом году все соб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переведут на поддержку Вовы Кольчугина из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й нуждается в соврем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реабилитации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осле полученной травмы. В 2018 году его сбила машина — вот уже четыре года мама сахалинца борется за его жизнь и мечтает поставить сына на ноги.

〈자녀교육 공로〉에 대한 명예훈장을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자녀교육 공로〉 명예훈장 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뤄지며, 매해 명예훈장과 상금과 상장을 세 가정 또는 부모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교육청 조직위원회의 신청서 접수는 아무르스카야 거리. 88(402호 4층)에서 오전 9시-13시, 14시-17시까지 이뤄진다. 상담 문의는 전화312-687 (5번 추가)로 할 수 있다.

명예훈장 수여 대상은 부모 (또는 편부모), 법적 후견인(임양자, 보호자, 후견인)으로서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에서 10년 이상 상시 거주하며, 7세 - 18세까지 자녀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한 러시아 국민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학업에서 스포츠, 창작, 과학 예술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가족 전체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기관, 단체, 국가 정부기관, 지역 자치기관, 사회단체 종사자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시상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 두마의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четный знак "За заслуги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четного знака начался с 16 январ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15 февраля 2023 года.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четного знака "За заслуги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Ежегодно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награждают не более трех семей (родителей). Вместе с ним выда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ое денежн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и удостоверение, сообщает ИА SakhalinMedia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ргкомитет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будет вести прием заявителей с 9.00 до 13.00 и с 14.00 до 17.00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Амурская №88 (4 этаж, кабинет 402). Консульт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312-687 (добавочный 5).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очетный знак могут граждане, являющиеся родителями (одним из родителей), либо иными закон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усыновители, опекуны, попечител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е менее 10 лет, воспитавшие (воспитывающие) двоих и более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8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 чтобы дети имели достижения в учебе, спорте, творчестве, науке и искусстве и в целом семья могла бы являться примером для горожан.

Кандидатуру 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коллективы предприятий, учреждений, организаций,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Награжд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а основании решения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8-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